

국경 초월한 음악축제... 낭만과 풍류 넘친다



늦여름 광주의 밤을 화려하게 밝힌 15회 월드뮤직페스티벌.

제3세계 음악·인디밴드 요람...마니아 많아

ACC월드뮤직페스티벌

월드뮤직페스티벌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흘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열린마당, 5·18민주광장, 원효사에서 진행됐다.

올해 15회를 맞은 월드뮤직페스티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콘텐츠로 장르와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음악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무경계 음악축제다.

이번 월드뮤직페스티벌은 <김창환 밴드>, <육상달빛> 등 정상급 뮤지션이 장식하는 빅도어 스테이지와 첼리스트 이육경, 페르시아 음악 전문가

카이한 칼호르 등 전문 음악인이 협업을 선보이는 월드 스테이지로 구성됐다. 또 ACC 스테이지와 무빙씨어터로 통해 체코 출신 뮤지션 <OMNION>, 베트남 아마추어 그룹 <V-Wave> 등 제3세계 음악을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했다.

월드뮤직페스티벌에서 눈여겨 볼 점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특별한 무대인 '반디 스테이지'를 장식할 '반디밴드' 모집이다. 나이, 성별, 지역, 장르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할 수는 있지만 광주 및 전라도 지역 내 음악가와 밴드를 우선 모집해 지역 문화역량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해 일반인과 어린이

들이 전문 음악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일본의 사운드 아티스트 요시 호리카와가 설계하는 정교한 워크플로우를 경험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사운드스케이프 워크숍', 첼리스트 이육경과 즉흥연주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탐구하는 '즉흥음악 워크숍', 몽골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쿠숙통 밴드의 '전통악기 돋보기(몽골)'로 구성됐다.

한편 월드뮤직페스티벌에서는 음악 공연뿐만 아니라 플라마켓과 푸드트럭도 함께 진행됐다. 광주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 21팀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름다리에 핸드메이드 악세사리, 베이커리, 잡화 등을 판매하고 8개소의 푸드트럭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박준원 학생기자

스텔라장·밴드 다섯 등 도심 속 행복한 축제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광주광역시시는 '2024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을 9월 27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개최해 도심의 가을밤을 수놓았다.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유명 뮤지션의 무대를 선보이는 대중음악 야외 페스티벌로,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다. 특히 올해는 광주시 가을축제 통합브랜드 'G-페스타'의 하나로, 같은 장소에서 '2024 광주 에이스페어'와 '비어 페스트 광주'와 함께 열려 풍성한 문화 콘텐츠 대잔치가 됐다.

'굿 뮤직, 굿 바이브(GOOD MUSIC, GOOD VIBE)'를 주제로 따뜻하고 발랄한 보이스와 매력적인 멜로디로 매력을 발산하는 스텔라장, 정춘을 위로하는 밴드 다섯(DASUTT), 시원한 가창력으로 행복을 전하는 싱어송라이터 윤마치(MRCH), 일상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허지욱, 재

즈를 기반으로 평온을 표현한 ART4가 무대를 꾸몄다.

참여팀은 모든 곡을 직접 연주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무대를 선사했으며 공연 관람은 무료다.

특히 이번 공연은 '비어 페스트 광주'와 함께 열려 12종의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광주 대표 음식, 세계 음식 등을 맛보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백은아 콘텐츠산업과장은 "광주 대표 야외 음악 축제인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은 도심 속에서 즐기는 음악페스티벌의 진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리의 본향 큰 잔치...남도 국악 명맥 이어

임방울국악제

임방울 탄생 '120주년' 임방울 국악 120주년을 맞은 올해, 제32회 임방울국악제가 9월 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 전야제를 시작으로 나흘간 광주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 임방울 국악제는 기악, 판소리, 무용, 농악, 시조 등의 경연이 학생부, 일반부, 명장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장소 또한 빛고을시민문화회관, 광주향교, 광주예술의전당, 5·18민주광장 등 광주 시내 다양한 문화·역사 공간에서 진행돼 의

미를 더했다. 이번 임방울 국악제에서 수상한 인원은 총 69명으로 판소리 명장부에 지원한 정은혜(사진) 씨가 대상(대통령), 기악 일반부에 지원한 김정민 씨가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초·중·고등부에서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와 진도중학교 학생들이 수상하며 남도 국악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국립국악원(원장 김영운)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이 '최고의 소리란: 신춘에는 옛 노래 유행할까' 전시를 개최해 임방울, 이화중선, 김소희 등 당대 명창의 소



리를 복각한 디지털 음원 150여 점을 공개한 바이다.

다양한 지구촌 음악 '버스킹 도시'에 가득

광주 버스킹 월드컵

10월 1일 '아시아 뮤직 서밋 인 광주'를 시작으로 닷새간 진행된 광주버스킹월드컵이 조금 더가신 늦여름의 더위를 날렸다.

5·18민주광장, ACC하늘마당 등 광주 동구 일원에서 진행된 광주버스킹월드컵은 아시아 음악 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인 '아시아 뮤직 서밋 인 광주'를 통해 버스킹 월드컵을 통한 지역 음악 산업 발전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 설치된 저니 스테이지와 그린 스테이지에서 <매간당>, <제4집단> 등이 참여해 광주와 아시아의 음악을 소개하는 '아시아 쇼케이스'를 진행했다.

컨퍼런스와 쇼케이스가 끝난 이후에는 <신춘블루스>, <몽니>, <김순영재즈트랩> 등 뮤지션의 초청 공연과 광주버스킹월드컵 참가팀의 예선과 결선이 이어지며, 닷새 동안 광주 시내를 낮설지만 신선한 음악으로 가득 채웠다.



통기타·국악 접목...음악으로 빚어낸 추억

사직동 숲속 가을 음악회

사직동 숲속 가을 음악회가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사직공원 유아숲 체험원에서 펼쳐졌다. 도시 재생사업 일환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남구정역이 주최하고, 사직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진행했다.

숲속 가을 음악회의 주제는 '음악으로 빚어낸 사직동의 낭만과 풍류'로, 마을 주민들이 사직동의 대표적 지역 자원인 통기타와 국악을 접목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숲속 음악회의 첫 무대 주인공은 가수 박하성씨다. 사직동 통기타 거리에서 활동 중인 대표 음악가로, 현재 사직 음악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

난 1995년에 데뷔한 뒤 방송국 등 다양한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뒤이은 무대는 통기타 가수 김유화씨가 이어받았다. 통기타 거리 무대를 비롯해 각종 페스티벌과 축제 무대, 방송국 라이브 무대에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해 싱글 앨범 '와온의 노을'을 낸 뮤지션이다.

실력과 가수들의 무대가 끝난 뒤에는 마을 주민 3명이 각각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4개팀은 뜨거운 공연 무대를 펼쳤다. 국악 분야의 실력자들 무대에 올라 국악을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해 연주하는 크로스오버 단체 예락과 국악 EDM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락zk 2개팀이 1시간 가량 신명난 공연을 선보였다.

클래식 팬들의 오랜 친구...단원들 놀라운 내공

광주시립교향악단 송년 음악회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의 2024년도 정기연주회가 12월 24일 열리는 '2024 송년음악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2024 송년음악회'는 ▲베버의 오베론 서곡 J.306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 C장조 op.56 ▲브람스의 교향곡 1번 C단조 op.68 연주로 구성해 귀에 익은 클래식 음악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향의 2024년도 정기음악회는 380회에서 390회까지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회차별로 ▲2024 신년음악회; Festival ▲No.2 ▲Klimax ▲Babi Yar ▲鎮魂 ▲현정 ▲Leggiero ▲거칠게 아름답게 ▲행진 ▲Star ▲2024 송년음악회라는 테마로 모차르트, 바그너, 라흐마니노프 등 거장의 음악을 연주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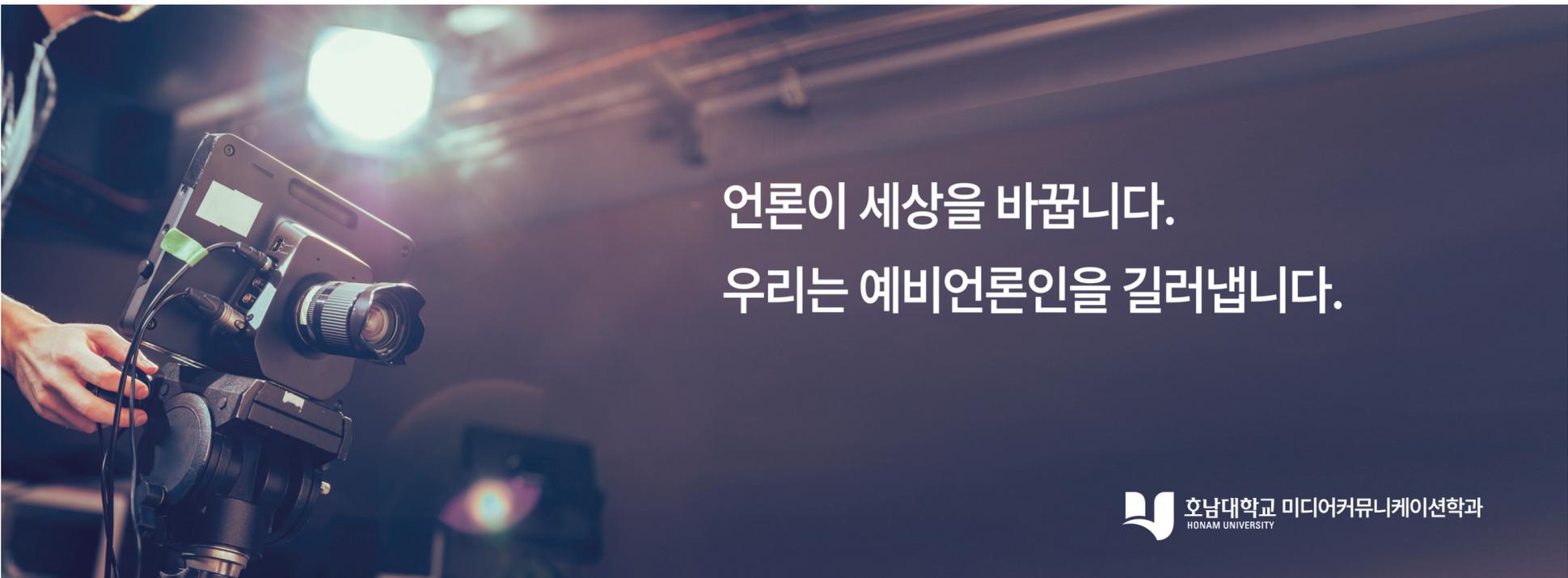
광주시향은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외에도 기획 연주회인 '오텐 콘서트'와 특별 연주회인 '키즈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잘 알려지지 않은 교향악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아동이 음



악에 친근함을 느끼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 광주시향의 상임지휘자는 한국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오페라극장의 수석카펠마이스터를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젊은 명장'이라 평가받고 있는 홍석원 지휘자가 6월까지 재임했다. 각종 콩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여러 매체로부터 호평을 받은 홍 지휘자는 광주시향 취임 후 대부분의 공연을 매진시키기도 했다.

/박준원 학생기자



언론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예비언론인을 길러냅니다.